

「은혜」에 나타난 해석학적 상황의 모순과 영적 마비*

이 인 기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한 단편 「은혜」(“Grace”)¹⁾는 본문 속에 언급된 “적절하게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구절”(D 173)만큼이나 그 의미구조를 파악하기가 난해하다. 조이스가 이 단편의 제목을 “은혜”로 설정한 것부터 본문내적 근거를 포착하기 쉽지 않고, 은혜가 마비라는 그의 작품의 주제의식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논거를 구성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본문 속의 퍼든(Purdon) 신부의 강론에 집중해보면, 조이스가 생략과 은폐의 글쓰기를 통해 “성직매매”로 대변되는 종교계의 부패를 자기반영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은혜”의 해석학적 상황이 모순으로 얽혀 있어서 조이스의 공연대로 더블린이 “마비의 중심”인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해석학적 상황이란 어떤 사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물리적 및 정신적 조건을 총체적으로 가리킨다. 예를 들어, 그 신부가 자신이 해석한 성경말씀을 강론하면서 자신의 지적

* 이 논문의 연구는 2016학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1) 이 단편의 제목을 “은총”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지만, 은총은 용법상 위계질서의 상해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단편의 내용상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용어인 “은혜”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태와 신앙실천의 부패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는 것은 그 자신의 해석학적 상황이 “성직매매”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변질된 해석학적 상황을 분석하게 되면 “은혜”와 마비의 주제의식을 연계시키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논거를 구성해가기 위해서는 해석학, 특히, 성서해석학적 작업이 필요하다. 은혜가 종교적 함의를 가진 개념이므로 그 개념에 관한 성경신학적 정보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그의 해석행위의 오류를 검토한 뒤, 그의 해석학적 상황을 구성하는 당시 더블린 사회의 종교적 지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좌절시키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퍼든 신부의 강론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더블린 종교계의 변질된 해석학적 상황이 어떻게 “마비의 중심”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는 기독교 신학상 핵심적인 요소인 은혜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데다가 성서 해석의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서 자의적으로 성경본문을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선, 성경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며, 맥락을 따라 의미를 파악하고, 한 본문의 의미와 성경 내 다른 본문과의 의미가 상응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것이 성서해석학의 기본 원칙임에도 그는 이를 도외시하면서 성경본문의 본래적 의미를 변질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질된 해석학적 상황이 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그 상황이 그 자신에 대한 시간적, 역사적 전승의 영향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대응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므로 더블린 사람들의 종교적 지형 자체가 이미 부패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고는 은혜에 대해 그가 오해하고 있는 성경신학적 정보를 보정하고, 당시 더블린의 종교적 지형을 모순의 그물에 얽히게 만든 부패한 신앙실천의 양태를 지적할 것이다. 이로써 조이스가 “마비의 중심”인 더블린이 드러내는 “조국의 도덕사의 한 장”을 변질된 해석학과 신앙실천의 부패라는 주제로 기술하였음을 보여줄 것이다.

1. 은혜 개념의 변질

성경을 해석할 때는 상징적이거나 우의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문자적 해석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Zuck 15). “성

경은 의미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의미한다”(Lane 39)는 원칙은 어거스틴이나 칼빈 등의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재차 확인되고 있다. 상징적이거나 우의적인 해석은 2차적인 데다 주관적일 수 있어서 성경에 써여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태도를 문자 자체에 대한 맹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관적인 해석이 성경본문의 문자에 실린 본래적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런 점에서 조이스가 은혜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강론한 신부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일화는 매우 시사적이다.

조이스는 은혜의 교리에 관한 강론을 듣고 그 설명의 부적절성 때문에 화를 내며 혐오감을 표시한 적이 있다. 스타니스로스 조이스(Stanislaus Joyce)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형은 설교자가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청중들에게는 무언가 충분히 좋은 말이라고 여기며 지껄었다는 것이다. 형은 그렇게 조잡한 설명을 영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화를 냈다. (MBK 225)

강론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은혜에 대한 설명이 “조잡한” 정도였다는 판단은 『더블린 사람들』의 “은혜”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은혜” 속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3번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첫 번째 용례는 커난 씨(Mr Kernan)가 의복을 잘 갖추어 입는 것이 검문을 통과하게 하는 ‘은혜’(힘, 덕택)라고 말하는 경우이고(D 154), 두 번째는 포가티 씨(Mr Fogarty)가 커난 씨의 아이들을 지나치면서 ‘은혜’(정중함)로운 자세를 취한 경우(D 166)이다. 이 두 경우는 일상적인 화법에서도 통용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퍼든 신부가 강론 말미에 사용한 하나님의 ‘은혜’(D 174)는 ‘은혜’의 신학적 의미를 부적절하게 이해한 경우이다. 그는 ‘은혜’의 개념을 오해할뿐더러 용법상 왜곡하기까지 하고 있다.

퍼든 신부는 강론 중에 영적 생활에 관한 장부를 철저히 기록할 것을 권고하면서, 그 영적 장부에서 오류(죄)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남자답게” 처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오류를 교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파한다.

그런데, 내가 나의 계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잘못되었고 요것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과 요것을 교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의 장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D 174)

여기서의 ‘나’는 물론 퍼든 신부가 청중들을 대표하여 대입한 인물이지만 그도 또한 포함된다. ‘나’는 자신의 영적 장부를 감찰하면서 영적 계정의 오류를 교정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언급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영적 갱신 노력에 대한 부차적인 도구로 제시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들이 매사에 철저하게 자신의 영적 계정을 기록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 계정을 수정하도록(I will rectify . . . I will set right) 돕는 원조 체계인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with God’s grace)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구로 삼아”(by the means of God’s grace)의 의미가 되어버렸다.

퍼든 신부가 은혜를 이와 같이 사용한 것은 그가 은혜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학적으로 은혜를 정의한다면,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된 신약성서의 구절의 대부분에서 그 단어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역사(役事)를 의미한다. 우리는 은혜를 마치 재능처럼 인간의 내재적 속성인 것으로 설명해오기는 했지만, 사실, 은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성령의 매개와 내적 역할에 의한 선한 신성(神性)의 전달을 일컫는다. (Girdlestone 179)

은혜는 퍼든 신부의 설명처럼 인간적 노력에 대한 부차적인 원조체계가 아니라 인간의 공덕이 전제되지 않은(unmerited) 하나님의 값없는 사역을 일컫는다. 이 정의는 1871년에 출판된 책에서 제기되었는데, 조직신학의 대가인 벌코프(Louis Berkhof)도 이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Berkhof 426-27).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성령의 매개와 내적 역할에 의한 선한 신성의 전달”을 일컫기 때문에 인간의 상응적인 노력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퍼든 신부는 강론에서 은혜를 죄의 용서와 연결시키는데, 바로 이 요소가 인간의 공덕을 전제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지시한다. 죄의 용서란 인간의 노력이 개재하지 않는 오로지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 자신이 영적인 생활의 교정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양 강론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이 영적인 생활을 교정하도록 돕는 원조체계가 아니라 영적 생활을 갱신하는 동력 자체인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인간 내면에서 매개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선한 신성이 전달되는 점이 개념상 강조된다. 퍼든 신부가 영적 장부를 철저히 기재하고자 한 이유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론할 때는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용서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개념을 전제했어야 한다. 영적 장부를 철저히 기재하며 감찰하는 행위는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결과적 행위인 것이다.

로마서 11장 5-6절에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이런 의미에서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 대상에 의해서는 조금도 조건 지어지지 않는 그분 자신의 역사(役事)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4절(“일하는 자에게는 그 값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에서 제시한 대로, 만일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라면, 구원은 빛을 청산하는 대가로서 하나님이 부여하는 것이 된다. (Easton 1291)

물론, 퍼든 신부의 강론이 죄를 짓지 않도록 영적 생활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행적 허여를 강조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강론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자신이 인용한 성경 구절의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앞뒤 문맥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음(본고의 후반에서 살펴볼 것임)을 알 수 있다. 은혜의 개념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은 데다 인용 구절의 맥락상 의미도 삭제된 강론이 “거의 제수이트교단 소속 신부라고 할 만큼 교회사에 능통했던”(O'Connor 311) 조이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 청중들에게는 무언가 충분히 좋은 말이라고 여기며 지껄[인]” 것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크다. 퍼든 신부는 자신이 강론한 성경구절에 대해서 마치 커닝엄(Martin Cunningham)이 역사에 관해 어설픔게 알고 있는 것(O'Connor 311)과 같은 정도로나 이해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처럼 퍼든 신부의 강론에 대해서는 은혜에 관한 해석의 부적절성을 암시하

는 반면에, 조이스는 일반인들의 삶에 대한 묘사에서는 은혜의 적절한 의미를 구현해놓았다. 은혜라는 용어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공제할 때, 은혜는 베푸는 자의 일방적인 공여이며 수혜자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 행위를 지시한다. 이 개념을 따를 때, 『더블린 사람들』의 “은혜”는 첫 장면에서부터 그 정확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커난 씨가 술에 취해 술집의 화장실로 굴러 떨어져서 의식을 잃었을 때 자전거선수 복장을 한 청년이 그에게 구급조치를 해준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고 순경도 그 “거대한” 몸체만큼이나 사태정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순경은 당시의 국가 체계가 위난당한 시민에 대해 “미동도 않는” 표정으로 행정적인 절차나 수행하기 위해 작은 수첩을 “드러내며” 그의 “존스런” 억양만큼이나 상황대처에 미숙한 태도를 보이는 상태에 있음을 상징한다(D 151). 청년의 행위는 커난 씨가 의식을 잃어 자구적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은혜의 의미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그는 커난 씨가 의식을 회복하자 마침 나타난 파워 씨(Mr Power)와 함께 그를 부축하여 마차에 태워 집으로 보낸다. 그는 감사의 표시를 받는 것도 사양했다.

-절말로 너무나 감사할미다, 선생님. 부상당한 남자[커난 씨]가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 한 잔만 할 . . . ?

-지금은 아니요. 아닙니다. (D 152)

조이스의 창작 의도에 따르면, 커난 씨는 지옥에 굴러 떨어진 사람인데(Peake 41) 그 청년은 그를 구원한 존재이며 그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시혜를 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존재이다(Peake 43).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 누가복음 10장 30-37절의 비유에 나오는데, 강도를 당해 의식을 잃은 유대인을 자기 비용을 들여 치료해준다. 예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참된 이웃의 모범으로 제시한다. 그 청년뿐만 아니라 커난 씨를 집으로 데리고 간 파워 씨도 그런 존재이다. 이들의 모습에서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은혜는 베푸는 사람의 희생과 일방적인 허여, 수혜자의 비상응성과 감사하는 마음이 함축된 개념인 것이다. 여기서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를 은혜로 인지하는 최종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은혜가 더블린의 종교적 지형과 연계되면, 그 은혜의 개념은 회화적인

형태로 변질되어 드러난다. 커난 씨의 집에 모여든 친구들이 그를 목요일 피정에 데리고 가서는 영적 갱생의 기회를 갖도록 ‘은혜’를 베풀고자 할 때 그는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 제안에 대해 커난 여사는 비록 “자신의 남편 나이인 사람이 죽기 전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D 157)을 알고는 있지만, 흡족해 하는 반응을 보이는 한다. 반면에, 정작 커난 씨에게 그 제안은 거의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못한다. 결국 그는 “영적 대항자들”(D 163)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나선 것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피정에 참석하기로 결정하기는 하나, 피정에 초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고집을 부림으로써 그 불편한 심경을 은연중에 드러내었다.

-그런데 커난 여사, 우리는 여기 당신 남편을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로마가톨릭 신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팔을 펼쳐서 자기 동료들을 모두 포함하는 몸짓을 했다.

-우리는 함께 피정을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겁니다. 우리가 몹시 그러하길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

-안 돼, 절대로, 커난 씨가 의도적으로 말했다. 나는 그 점은 분명히 할 거야. 좋아, 그 일은 반드시 할 거야, 피정이니 고백성사니... 등등은 모두다 하겠다구. 하지만... 초는 안 해! 안 할 거야, 절대로, 나는 초가 싫다구! (D 170-71)

그리고 포가티 씨를 포함하여 커닝엄 씨, 파워 씨, 머코이 씨(Mr M'Coy)를 “영적 대항자들,” 즉, 복음을 전하러 온 네 명의 복음서 저자들[마태, 마가, 누가, 요한]로 연계시켜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O'Connor 312), 그들은 커난 씨 집에서 맥주 대접도 받고 객적은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등 은혜의 속성을 구현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그들의 대화 속에는 세속 권력과 영적 권력이 대비되고 그 권력들이 기대 이하로 변질된 양태로 언급되기도 한다. 퍼든 신부로 대변되는 가톨릭 사제들의 지적 나태와 부패는 그 친구들이 피정에 참석하기도 전에 이미 일 반화된 정보로 제시된다. 그 신부는 종교의 타락상에 대한 극화이며 은혜의 종교적 변질의 극점이다. 앞으로 커난 씨를 영적으로 갱생시키고자 한 그들의 ‘은혜’가 무위에 그칠 것이라는 사실이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의사영웅체(mock-heroic)를 흉내 내어 기술된 것(O'Connor 309)도 종교

에 대한 조이스의 냉소적이거나 회화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조이스가 은혜에 대한 강론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화를 낸 기억이 이 작품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다. 더블린의 종교적 지형에서는 은혜의 개념 자체가 변질된 상태이다.

II. 은혜에 대한 해석학적 상황의 모순

더블린의 종교적 지형에서 전개된 은혜의 회화화는 퍼든 신부에게서 극점에 달한다. 조이스는 커난 씨의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가톨릭 신부들에 대한 불신을 실어놓았다. 그는 퍼든 신부로 대변되는 “세속적이며, 무식한데다 거만하기까지 한 사제들”(D 164)의 행태가 더블린 사람들의 영적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다. 다른 한편, 그들은 신부들이 그들의 식민제국에 부역하는데도 상황판단력이 마비된 듯 여전히 “그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야.... 아일랜드 사제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랑스럽지.... 대륙의 일부 다른 사제들과는 전혀 달라”(D 164)라고 믿고도 있다. 조이스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이 영적 지침의 오용과 호도로 인해 조성되었다고 염려하는 듯하다. 그래서 그는 퍼든 신부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 강론하는 과정에 그의 해석학적 상황이 모순에 싸여있음을 드러낸다. 그 신부는 “우리 자신들과 다름없는 세속인”(D 164)이었던 것이다.

퍼든 신부는 강론을 위해 성경본문을 인용하면서 그 본문의 문맥과는 상관없이 우의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성경본문을 해석할 때는, 앞서 밝힌 대로, 문자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더하여 그 본문의 문맥을 따져가며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Zuck 106). 특정 본문에서 문맥을 삭제한 채로 해석을 시도하면 해당 본문의 의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것처럼 본문의 문맥을 삭제하는 것은 해석자 본인의 의도대로 그 본문을 해석하고자 하는 의중에 따르는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에는 해석자의 해석학적 상황이 반영되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는 자신이 인용한 성경본문을 해석하면서 당시 더블린 종교계의 부패와 타락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그가 인용한 성경본문은 누가복음 16장 8-9절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로 너희들의 친구를 만들라. 그래야 너희들이 죽을 때 그들이 너희들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D 173)

이 구절은 소위 ‘불의한 청지기’ 비유(누가복음 16장 1-15절)의 일부이다. 이 구절의 맥락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즉, 소위 “빛의 자녀들”을 훈계하려는 의도와 상관있다(Culpepper 307). 종교적인 생활에 집중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훈인 것이다. 그래서 그 비유는 그들이 재물을 멀리하되, 속세의 사람들인 “재물신의 숭배자들”(D 174)이 돈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생활에서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 구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너희들의 친구를 만들라”는 말씀은 재물을 친구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라 재물을 이용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뜻이다(Culpepper 309). 이것을 성서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불의한 재물, 즉, 죄를 청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이다. 이것이 지혜로움의 내용인 것이다.

그러나 퍼든 신부는 이러한 교훈과는 상관없이, 예수께서 우리 인간들이 모두 종교적인 생활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강론을 시작한다. 강론의 시초부터 그 교훈의 지향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 성경구절 자체가 “세속적인 삶을 살 운명을 지녔지만 속물들이 살듯이 그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특별히 개작된”(D 173)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속세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다, 어느 정도는 세상을 위해서 살기도 해야 하는 조건을 이해하고 계신다고 부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오성을 지녀서 우리 인간 본성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계시므로 모든 인간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도록 부름 받지 않았다는 것과 압도적인 다수가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는 세상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충고 한마디를 해주려고 의도하셨다. 그들 앞에 재물신의 숭배자들, 즉, 모든 인간들이 그러하듯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그마한 열성도 없는 사람을 종교적인 생활의 모범으로서 제시하신 것이다. (D 174)

예수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말라(누가복음 16장 13절)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설파했다. 세상 자녀들이 불의한 재물에 대

해서도 충성을 다하는 자세를 “빛의 자녀들”이 배울 것을 상기의 인용 구절처럼 일러준 것이다. 그런데 퍼든 신부는 그러한 맥락을 생략하고 미사에 모인 사업가들과 전문직업인들이 “어느 정도는 세상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서 “재물신의 숭배자들”의 세속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상의 변질에 더하여, 그는 자신이 종교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인 사실을 몰각하고서는 “재물신의 숭배자들”과 동료가 되고자 한다고까지 발언한다.

그는 그의 청중들에게 자신이 그날 밤에 어떠한 위협적이거나 거창한 목적을 갖고서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동료 인간에게 말하는 속세의 사람으로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가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왔으므로 사업가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하려는 것이다. (D 174)

이 발언을 그가 미사의 청중들에게 종교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기에는, 앞서 커닝엄 씨가 그를 두고 “우리 자신들과 다름없는 세속인”이라고 평가했던 발언이 부각된다. 그는 예수께서 “재물신의 숭배자들”을 종교적인 생활의 모범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함으로써 자신도 “어느 정도는 세상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사실상 그는 재물을 친구로 삼는 자였던 것이다.

그가 자신을 “속세의 사람”으로 칭했을 때 생긴 이와 같은 상황적 모순은 그가 영적인 생활을 장부 정리의 은유로 설명하는 데서 강화된다. 그가 “자신의 청중들이 모두 자기 자신의 장부, 자신의 영적인 생활의 장부를 펼쳐서 자신들이 양심껏 정확하게 기재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한다”(D 174)고 말했을 때는 그 취지가 예수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가 가혹한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설명한 부분은 자칫 신앙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상황상 부정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는 매사에 철저히 기록된 장부에서 발견된 오류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직설적이고 남자답게”(D 174) 교정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과 상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퍼든 신부가 인용한 성경말씀은 누가복음 15장부터 이어지는 교훈의 맥락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누가복음 15장에 제시되는 3편의 비유는 모두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행적

허여가 있는 뒤에 누가복음 16장의 지혜로운 처신에 대한 요구가 제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할 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은혜의 신학적 의미가 정확히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든 신부는 그 맥락을 생략하고 인간의 회오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가 중세가톨릭의 신학적 해석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세가톨릭은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회개’(repentance)를 ‘회오의 행위’(penance)로 오역했고, 그 때문에 인간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선행 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신학을 견지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를 처벌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Miller 17-20). 그의 해석학적 상황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는 죄를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직설적이고 남자답게” 처신한다는 것 자체가 신학적으로 상응하지 않는 행위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조이스는 이와 같은 퍼든 신부의 모습을 그가 강단에 오를 때 힘겨워 하는 모양으로 관찰되도록 묘사했다. 그가 너무 비둔해서 강단을 오르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그의 모습을 두고 신체 일부의 마비증세라는 지적(Ghiselin 319)이 있기는 하지만, 강론을 하는 등의 논리적 행위를 볼 때 그의 마비는 신체적 현상이라기보다 상기와 같이 종교적 이해와 실천의 관점에서 관찰되는 영적인 마비증세로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의 이름이 『율리시즈』(*Ulysses*)의 「써시」(“Circe”) 장에 나오는 홍등가의 이름과 같은 것(U 15.611)은 그의 행적에서 드러나는 모순의 함의를 확증한다. 그는 종교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세속인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는데다 강론도 사업가들을 위해 성경말씀을 “개작할” 정도로 세속과 타협하는 인물인 것이다. 그의 강론은 머코이 씨가 “제수이트 신부들은 상류층에 영합한다”(D 164)라고 지적한 대로 세속과 영합한 결과물이다.

이처럼 퍼든 신부는 자신의 실체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는 “존재망각”(하이데거 57)의 상태에 있다. 이 존재망각은 그가 해석한 성경구절과 관련된 강론을 둘러싼 전체적 의미연관의 형체를 “그것 자체에서부터 보이게 해준” 결과이다. “자신이 내보이고 있는 그것을, 그것이 자신을 그것 자체에서부터 내보이고 있듯이, 그렇게 그것 자체에서부터 보이게 해주는”(하이데거 57) 현상학적 진실인

것이다. 그 진실은 그 신부 자신이 드러내는 의미연관들의 총체적 발현이므로 그가 지녔던 선입견과 그 선입견을 형성하게 한 영향, 즉, 역사적 시간성을 고려해야 하는 그 나름의 세계 내 사건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그가 중세가톨릭적인 회개의 개념을 설파한 것부터 종교가 더블린 사람들의 영혼을 옥죄고 있는 상황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았는데 인간들이 행위를 통해 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신앙적 관행을 권고하는 것은 결국 더블린 사람들의 영적 생활을 마비시키는 일이다. 그는 이러한 신앙적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이에 따른 해석행위를 통해 더블린의 영적 마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는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모른다.

그리고 그의 존재망각은 자신이 인용한 성경말씀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것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예수께서 활동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돈을 좋아하는”(누가복음 16장 14절) 자들로 비판을 받고 있었다. 즉, 퍼든 신부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재물을 좋아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말씀을 재물신을 섬기는 자와 같은 동료로서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그는 사실상 세속인들과 다름없이 “어느 정도는 세상을 위해서 살면서” 재물신을 숭배하기도 한 가톨릭 사제들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예수도 가혹한 주인이 아니며 매우 종교적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식의 변질된 해석학을 제시하면서 재물을 추구하는 일을 정당화한다. 그가 사용한 영적인 장부 정리의 은유도 결국 그의 재물 선호를 반영할 따름이다. 여기에는 가톨릭 신부들이 신앙생활의 실천덕목과는 모순되게 대가를 바라며 종교생활을 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조이스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

조이스는 당시의 교회가 지적인 좌절과 경제상의 실패로 신대륙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에게 정신적 곤핍을 배가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격감을 두드러져 보이게 하려는 듯 교회와 성당, 수녀원과 수도원, 그리고 신학교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있다. 그것들은 퀸스타운에서 뉴욕까지 향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와 돈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의 정신적인 곤핍을 배가시켰다. 아일랜드는 무수한 직무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이제껏 불가능한 일로 간주되던 일을 수행해 왔다. 즉 신과 재물을 함께 섬겼고, 영국에 수탈당하면서도 베드로에게 바칠 헌금을 늘려주었다. (CW 190)

이처럼 교회는 신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그들 자신은 외형적 성장에 주력하는 등 재탐을 부렸다. 블룸이 종교를 “수지맞는 책략”(U 8.17)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조이스 자신의 비평문 속에서 상기의 것 이외에도 다수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신부들에게 은혜는 종교인으로서의 실천덕목이 되지도 못했고 그들 스스로도 그 의미를 체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만일 그들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것은 “수지맞는 책략”의 일환으로 제공되었을 따름일 것이다. 조이스에게 가톨릭교회는 2천년 동안 권위와 존경만을 강요하여(P 243) 아일랜드의 실제 주권을 거머쥔 듯 행세하면서(CW 173) 경건의 탈을 쓴 기만(U 5.391)을 자행하였고 결국 동족을 “사제가 날뛰는, 신이 버린 종족”(P 37)으로 만들어버린 마비의 그물이었다. 이 같은 해석학적 상황의 모순이 더블린의 종교적 지형을 마비시켰던 것이다.

III. 비유의 맥락상 의미와 은혜의 좌절

이러한 해석학적 상황 아래에서 형성된 선입견이 퍼든 신부라는 세계 내 사건을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해의 모든 과정이 그 본질상 선입견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가다머 143)고 볼 때, 그의 성경해석도 중세부터 지속되어온 신학적 전통과 자신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연관의 영향 아래서 형성된 선입견의 산물인 것이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갖는 선입견은 개개인의 올바른 판단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개인적 존재의 역사적 현실성을 규정”(가다머 152)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계몽주의적 척도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해석 활동 자체가 “과거와 현재가 부단히 상호매개 작용을 하는 전통의 전승이라는 사건 속에 참여하는 것”(가다머 171)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 부정적인 선입견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강론이 변질된 해석학이라면, 그것은 당시 가톨릭교회의 영적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역사와 사회의 상호관계를 점검함으로써 그 부정적 선입견의 영향을 줄일 수 있듯이, 퍼든 신부가 ‘개작한’ 그 성경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그 말씀과 관련된 앞뒤의 구절들과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추구해보면, 『더블린 사람들』의 「은혜」를 보다 “적절하게 해석”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퍼든 신부가 인용한 성경말씀과 관련된 비유의 내용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8절에 나온 대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장면이다. 주인은 자신의 재물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청지기를 꾸짖었는데 그가 주인의 채무자들의 빚을 공제해줌으로써 사실상 또 다시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것을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lord’)이 청지기의 주인을 지칭하는지 예수를 지칭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Culpepper 309). 하지만 어느 쪽으로 보든 맥락상의 교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혼란의 백미는 예수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대목이다(9절 이후). 앞서 살펴본 대로 퍼든 신부는 이 구절의 해석을 통해 자신의 재탐을 자신도 모르게 드러낸다.

이 비유에서 예수는 청지기가 낭비하고 있는 재물을 ‘불의한 재물’(9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의는 무엇이며 누가 불의했다는 것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퍼든 신부가 인용한 구절로만 보면, 주인이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거나 예수가 재물 자체를 불의하다고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불의한 것을 해서 축재했다는 언급이 없으며, 예수가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할 것으로 보아 재물 자체를 불의하다고 재단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재물이 ‘불의한’ 이유는 청지기의 행위와 관련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청지기는 주인의 채무자들을 불러 그들의 채무 중 일부를 공제하는 일을 하면서 환심을 산다. 그는 채무 물품인 곡식과 기름에 대해서 비율을 달리하면서 빚을 공제해준다. 하지만, 주인이 이런 행위를 목격하고서도 지혜롭다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공제행위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전제할 수 있다. 만일 원금에 손상이 간다면, 어떤 주인이 그런 행위를 묵과하거나 심지어 지혜롭다고 평가할 것인가? 그 공제한 금액들이 주인의 원금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금액들은 채무에 대한 이자, 혹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Culpepper 308). 즉, 청지기는 그동안 주인의 물품들을 빌려주고서 그것들에 대한 이자(수수료)를 받았고, 이제 그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해준 것이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빌려준 돈이나 물건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이 명령한 대로 이자를 받지 않았는데(출애굽기 22장 25절; 25장 36-37절; 신명기 15장 7-8절; 23장 19-20절), 율법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명백히” 이자를 받았다

(Culpepper 308). 이 청지기는 주인의 물품을 빌려주고 거기서 ‘불의한’ 이자를 취득했던 것이다. 그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주인이 요구하지도 않은 이자를 받았고 그 이자를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서 낭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청지기가 관리한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 불의한 재물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혜로운 행위에 해당하는가? 그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로 흥청망청 낭비를 하다가 주인의 꾸지람을 듣자 정신을 차리고서 채무자들을 불러 이자를 공제해줌으로써 채무자들을 ‘친구로 만들었다’(9절). 그리고 그가 채무자들에게 공제해준 금액은 사실상 이자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을 삭감하더라도 주인의 원금에는 아무런 손상을 끼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는 주인이 보기에 불법적인 행위를 끊고 원상회복을 한 점, 그러나 자신의 재물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또한, 채무자들의 환심을 얻어서 실직 이후도 대비한 점, 게다가 그가 아직 실직한 것을 모르는 채무자들은 주인의 너그러운 인품을 칭송할 것이므로 주인의 명예를 높인 점 등 때문에 ‘지혜로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퍼든 신부는 자신이 인용한 성경구절에서 매우 난해한 ‘지혜로움’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 그는 영적 장부의 철저한 관리를 지혜로움과 연계시켜 설명하기보다 “술직하고 남자[다운]” 행동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비유에서 그 ‘지혜로움’은 구원의 길과 관련되어 있다. 예수는 이 청지기의 행위에 대해 해석(논평)하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을 때 그들이 그 청지기(제자들)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상 예수의 비유는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 비유는 신학적으로 볼 때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인으로부터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은 청지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이다. 2절에서 보듯이 그는 주인이 지적한 죄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고 골몰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불의하게’ 탐닉했던 죄(이자)를 삭제하는 행위를 시도했다. 즉,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재한다. 2절에서 주인이 ‘장부를 정리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회개의 기회를 허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한다. ‘장부를 정리하라’는 구절은 원어상 “관리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보라”(Give an account of your management)는 의미인데, 과오에 대해서 즉각적인 해

직, 즉,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실행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암시하고 있다. 퍼든 신부는 종교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지 않은 영적 장부의 철저한 관리는 사실상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죄를 청산해야 한다는 관점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 장부의 관리를 권고한 것은 사실상 심판의 공포로 청중을 위협한 것과 다르지 않다. 신학적으로 볼 때, 그의 해석은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죄를 청산하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비유 속의 “영원한 처소”는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불의한 재물, 즉, 죄를 청산했을 때 얻게 될 구원을 상징한다. 그는 일일이 자신의 죄책을 회개했고 그 결과, 예수도 지적하듯이, 친구를 얻어 “영원한 처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가 일일이 채무자들을 불러들여 물품에 따라 삭감액을 달리 지정한 것은 이자들이 달랐기 때문인데, 이는 그가 자신이 저지른 죄과의 죄책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을 암시한다. 그가 실직한 후에 거주하게 될 집을 채무자들이 마련해줄 것이라고 해도 그 집을 “영원한 처소”라고 지칭한 것은 예수가 이 비유를 구원과 관련하여 가르치고자 한 의도를 짐작하게 한다. 죄의 용서를 받은 자여야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처소”에 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상의 의미를 삭제 한 상태에서 퍼든 신부가 죄의 장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신앙적 모순만을 조장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는 세속인들과 다름없이 재물신을 숭배하고 있으므로 “영원한 처소”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이다. 그는 현세에서 살아남는 방도에 경도되어 있는 신부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는 자이다.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빛의 자녀들”인 제자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청지기 같은 세속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 않겠는가(8절)라고 반문하면서 그 지혜로운 행위의 핵심 조치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는 태도를 포기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사실상 같은 교훈을 주었다.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는 “빛의 자녀들”인데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15절)로서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짓에 해당한다는 것을 일러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자 예수는 그들이 청지기처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들로서 사실상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꾸짖는다(13절). ‘주인의 재산’과 ‘자신의 이익’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던 청지기처럼 두 주인을 섬기려는 자는 어느 주인도 온당하게 섬기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소홀하게 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13절)는 말씀은 이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인 것이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나온 대로 ‘간음죄’를 짓는 자들(18절)과 다르지 않다.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다가 말미에 예수가 간음죄를 언급한 것은 하나님과 재물신을 동시에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바리새인들이 저지르고 있음을 그들의 전공인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계고한 것이다.

퍼든 신부는 이 교훈을 자각했어야 한다. 그는 청지기의 행위를 영적 생활의 장부관리로 번역하면서 정작 자신은 재탐을 부리는 자라는 혐의에서 철저하게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영적 장부의 관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연계하여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서 청중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남자답게” 처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도 실제로는 “빛의 자녀”인데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로서만 살고 있으며 자신의 재탐을 숨기고 있으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15절)고 지적당할 삶을 살고 있다. 그는 강론을 하면서 “빛의 자녀들”에게 대한 훈계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듯 존재망각에 빠져서 이러한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순에 찬 해석학적 상황 때문에 은혜의 개념을 오도하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가운데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노정하고 있다. 이 비유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그는 재물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자였다. 이처럼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신부에게 은혜는 그 본래적 의미가 현현할 기회가 되지 못한다. 재탐을 부리는 자가 어떻게 희생과 일방적인 허여를 실천할 수 있겠는가?

그는 그저 “우리 자신과 다름없는 세속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의 강론은 자신의 공허한 외침으로만 끝난다. 강론이 끝난 뒤 청중들이 강론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사건’은 기대할 수 없다. 적어도 은혜의 본래적 의미가 “은혜”의 해석학적 지평에서는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은혜와 밀접한 생활을 하는 종교인의 모습에서 그 은혜의 의미가 부패한 양태로 소실되어버리므로 더블린 사

람들의 영적 마비는 명백해져 보인다. 그래서 퍼든 신부의 강론은 중도에 끝나버린 듯한 인상을 준다. 이것이 “은혜”를 익살 정도의 희극(Peake 41), 혹은, 조이스의 냉소가 느껴지는 블랙코미디로 규정하는 이유이다. “은혜”도 “한 사람의 영혼이 영적인 생명의 원천과의 관계를 흐리거나 약화시켜서 결국 회복시키지 못하게 되는 역사(이야기)”(Ghiselin 318)로 편입되고 마는 것이다.

IV. 맺는 말

「은혜」 뒤에 또 다른 마비의 이야기인 「죽은 사람들」(“The Dead”)이 이어지는 것에 논리적 비약이 느껴지지 않는다. 영적 세계가 모순에 얽혀 부패한 모습을 노정하는 곳에서는 ‘살아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이스는 더블린의 종교생활의 현장에서 마비현상을 포착하고서는 “은혜”에서 퍼든 신부의 강론을 중도에 끝내버리는 글쓰기를 통해 더블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좌절을 구현했다. 물론, 자전거선수 복장의 청년이 보인 은혜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은혜의 본령인 종교생활에서의 마비현상은 은혜의 부재가 더블린 사람들의 영적 생활의 본 모습임을 웅변한다. 신부들부터 은혜를 온당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영향이 그들의 추종자인 더블린 사람들에게도 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은혜는 개념상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인데, 퍼든 신부가 대변하는 더블린의 종교는 그 은혜를 인간의 자구노력에 대한 원조체계로 가르치면서 정작 스스로는 은혜의 본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영적 장부를 철저히 기재하며 오류를 교정하려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행위이지, 퍼든 신부가 암시하듯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는 행위는 아닌 것이다. 게다가 그 “영적 회계사”(D 174)의 철저한 장부정리는 결국 상류층에 영합하며 하나님과 재물신을 동시에 섬기려는 ‘영적 간음’의 양태로 폭로된다. 이것은 아일랜드의 가톨릭교회가 모순에 찬 해석학적 상황에 둘러싸여 영적 부패를 증폭하면서 결국 더블린 사람들을 마비시키고 있음을 대변한다. 조이스에게는 “사제가 날뛰는, 신이 버린 종족”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좌절되는 순간이다.

(백석대)

인용문헌

- 가다머, 한스게오르크. 『진리와 방법 2: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적인 특징들』. 임홍배 역, 문학동네, 2012.
- 하이데거, 마르틴.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 1998.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49.
- Culpepper, R. Alan. *The Gospel of Luke. The New Interpreter's Bible: Luke-John*, vol. 9, edited by Leander E. Keck et al., Abingdon P, 1996. pp. 1-490.
- Easton, Burton Scott. "Grace."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aedia*, vol. 2, Howard-Severance Co., 1930. pp. 1290-92.
- Ghiselin, Brewster. "The Unity of Joyce's *Dubliner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ited by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Viking, 1967. pp. 316-32.
- Girdlestone, Robert. *Synonyms of the Old Testament*. Longmans, Green and Co., 1871.
- Joyce, James.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ited by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Cornell UP, 1959. Abbreviated as *CW*.
- _____.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Abbreviated as *D*.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Viking, 1964. Abbreviated as *P*.
- _____. *Ulysses*. Random House, 1961. Abbreviated as *U*.
- Joyce, Stanislaus. *My Brother's Keeper: James Joyce's Early Years*. Da Capo P, 1958. Abbreviated as *MBK*.
- Lane, Kevin. *Fail-Safe for Fallacy: Every Believer Can Cut Straight to the Truth*. Xulon P, 2009.
- Miller, C. John. *Repentance*. CLC Publications, 2010.
- O'Connor, Frank. "Work in Progres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pp. 304-15.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UP, 1977.
- Zuck, Roy B. *Basic Bible Interpretation*. Victor Books, 1991.

Abstract

Hermeneutical Corruption and Spiritual Paralysis in “Grace” of *Dubliners*

Ihnkey Lee

This paper addresses how “Grace,” the penultimate story of the *Dubliners* stories, reveals itself to be corresponding to the paralysis of Dubliners in light of biblical theology and hermeneutics. Biblical theology shows Father Purdon’s preaching interpreted a Bible text in his own corrupted hermeneutics based on his theological mis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grace.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the text, which this paper tries to provide, testifies that he is himself inflicted with spiritual paralysis. It reflects Joyce’s criticism that Dublin Catholicism is corrupted by worshipping both God and Mammon, which is castigated as a spiritual adultery. “Grace” proves Irish landscape of Catholicism rendered Dubliners trapped in the net of religion with no expectation of God’s grace.

■ **Key words**: grace, hermeneutical perspective, paralysis, parable of an unrighteous steward, biblical theology, Father Purdon
(은혜, 해석학적 지평, 마비, 불의한 청지기 비유, 성경신학, 퍼든 신부)

논문접수: 2016년 11월 17일

논문심사: 2016년 12월 13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16일